

# 광주 추가 확진자 늘자 '코로나19' 검사 의뢰도 '폭주'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보건환경연구원 등 3곳서 검사 시행

“신체증상보다 어디서 감염 될지 몰라 심리적 불안감 크게 작용”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속속 확인되자, 코로나19 검체 의뢰도 급증하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3명의 확진자(16, 18, 22번)가 완치돼 모두 퇴원한 후 지난 20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A씨(30·126번 환자)가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1일에는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B씨(31·164번), C씨(30·239번), D씨(30·210번)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일 늦은 오후부터 21일까지 추가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하며 검사를 의뢰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보건환경연구원 3곳에서 시행한

검사 건수는 20일 50여 건이었으나 21일은 140여 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22~23일에도 A씨 밀접접촉자 E씨(32·489번)와 A씨의 아내 F씨(31·589번)가 확진 판정을 받아 검사 건수가 각각 80여 건, 60여 건에 달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발열이나 기침 등 신체적인 증상도 있지만,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코로

나19 검사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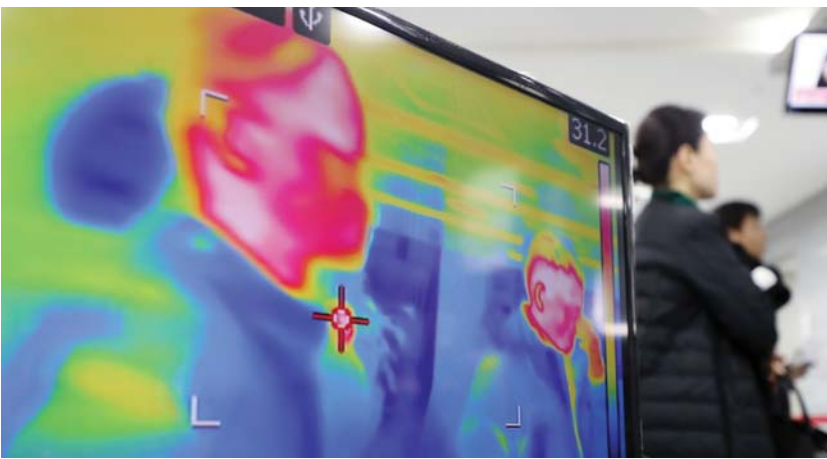
이 관계자는 “광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4일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당시에 확진자가 나온 날은 보건소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도 “시민들이 언제, 어디에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확진자 동선과 관계없이 ‘코로나19 의심이 된다’며 병원으로 이송 요청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광산구보건소, 광주기독병



원, 남구보건소, 동구보건소 북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가 가능하다. 지난 20일 확진자가 방문해 임시폐쇄됐던 서구보건소는 이날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검체 채취 가능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 광주 주요 사업장도 대응 태세 강화

출근 시 개별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금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광주지역 주요 제조사업장들도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4일 오전 출근 시간부터 기존의 열화상카메라에 의한 발열체크에서 모든 직원들의 개별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있다.

발열증상이 나타날 경우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게 되고,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도 전면 통제하고 있다.

방역도 강화해 매일 오전 공장 전역을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특별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외부인의 공장 내 출입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역시 공장 출입 시 열화상카메라로 체크하던 방식에서 한단계 강화해 개인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입출입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사무실에서는 개인적으로 착용토록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집합교육은 당분간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회의 참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며 “회의도 가급적 화상회의나 메신저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도 출입시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강화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4일 광주공장이 소재한 광산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조치를 강화했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고열 등 이상징후 발견시 곧바로 보건당국에 신고와 함께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대국민 예방수칙 개정...대구시민·신천지 교인 외출 자제

신천지 신도들 자가격리 철저히 이행하는 내용도 포함 발열·호흡기 증상 있으면 등교 또는 출근하지 말아야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속출한 지역의 시민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 외출을 자제하고,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대국민 예방수칙을 대폭 변경했다.

손 씻기와 기침예절은 물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 또는 등교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내용도 개정된 예방수칙에 포함됐다.

24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개정된 예방수칙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또 격리조치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의료인 또는 방역당국 지시를 따르고 자가격리 수칙 또한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 등에 참

석했던 신도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등에 먼저 문의한 뒤 해당 지시에 따라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일반국민은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하지 않는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한다.

임신부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며, 일반병원을 방문하는 대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추가 전파를 막는다.

## 광주 확진자 늘자... '1인 마스크 3개 제한'에도 대기 행렬



24일 오전 9시50분쯤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생활용품점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마스크 수급에 비상이 걸린 시민들이 상점에서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24일 오전 9시5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생활용품 판매점은 영업 시작 10분을 남겨두고 마스크를 사기 위한 손님들의 줄이 이어졌다.

해당 상점에서는 1인당 마스크 판매를 3개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매일 마스크를 구하기 위한 손님들의 줄이 이어진다.

해당 생활용품 판매점 관계자는 “오픈 준비를 하는데 문 열기 약 1시간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었다. 매장에도 매일 들어오는 마스크 재고가 한정돼 일찍부터 대기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매장에는 1000원짜리 마스크 30~50개가 매일 들어온다. 더 많이 판매할 수 없느냐는 손님들의 호소에 매장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시민 A씨(33)는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몇 번 구매했는데 웬지 더 비싼 것 같고 배송도 늦어지길래 요즘은 상점에서 마스크가 보일 때마다 수시로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